

“전남 한옥마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15년 간 혈세 2000억원 투입... 농촌 인구 유입 성과 미미
소모성 사업 구조조정하고 전남 미래 위해 예산 집중 필요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마을을 조성하거나 한옥을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조나 융자로 혈세 2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실제 인구 유입의 성과는 미미하고, ‘판박이’ 마을이 기존 농촌 경관이나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개별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15년이 지나 사업의 전면 개편을 통해 소모성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전남 미래를 위해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편>

6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한옥지원조례를 만들고, 전통한옥을 50㎡ 이상 규모로 10동 이상의 한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0만원의 보조금에 융자금 최대 2억원(보조금 포함, 연리 1%)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 정비까지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으로 기존 마을 정비, 신규 단지 조성, 한옥 보존 등으로 107개 마을이 전남 곳곳에 들어섰다. 문제는 이들 마을을 조성하는데 도비, 시군비로만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는 것이다.

개별 한옥에 대한 보조금 291억원 및 융자 432억원, 85개 마을 공공기반시설 지원 301억원 등 모두 1024억원이 들었다. 전남도는 최근 한옥사업의 신청자격을 1년 거주에서 토지소유주로, 건축 규모 역시 85㎡에서 50㎡로 낮추면서 이 같은 지원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조금을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 대신 융자 금리를 기존 2%에서 1%에서 인하한 뒤 융자금을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를 유입하기 위해 장흥 로하스타운을 조성하는데도 도비 13억원, 군비 34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아예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14개 시·군에 지금까지 54개 지구 1809세대를 조성하는데 들인 예산이 도비 5억원, 시군비 등 404억원, 국비 571억원 등 980

억원에 달한다. 20-50세대는 세대당 4000만원, 50세대 초과시 3500만원 등 지구당 8억-36억원을 지원했으나 그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각 시·군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으로 곳곳에 150여 개의 한옥 마을, 신규마을이 조성된만큼 이들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착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하는 방식보다는 융자 금리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들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한전공대 및 블루 이코노미 등 지역 미래 사업에 투입하면서 기존 농촌마을에 거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 보완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남도가 수립중인 경관 계획에 맞춰 ‘전남형 마을’ 모델을 만들고 기존 마을을 정비해 가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 교수는 “한옥마을 조성 지원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옥을 조성하는 것이 경관 이외에 지역발전이나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없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개인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방식보다 경관을 유도하고, 기존 주민들 역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능 D-100 ‘엄마의 기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100일 앞둔 6일 오전 광주서 서구 무각사에서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고득점을 염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미-중 환율전쟁에 세계경제 ‘혼돈’

美, 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G2 환율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국내의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편>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무닌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닌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 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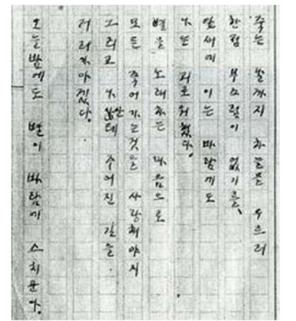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코스피 1.51% 하락 ‘불안’

대응으로 보인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 추기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약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환율전쟁 조짐까지 불거지자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48포인트(1.51%) 하락한 1,917.50에 장을 마쳤다. 3년 5개월여만의 최저치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8.29포인트(3.21%) 내린 551.50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와 같은 달러당 1,215.3원에 마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알립니다

동주문학상 공모



광주일보사·‘시산맥’ 공동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운동주는 암울한 일제 식민지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입니다. 그의 ‘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시’에는 식민지 처하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이 ‘동주문학상’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서시’에 담긴 시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동주문학상’을 제정, 공동 운영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동주해외작가상’도 공모합니다.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문학상에 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 4회 동주문학상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 공모 부문: 시 (55편 내외)
- 마감: 2019년 8월 31일 ▷상금: 1000만원
- 응모 요령: 시집 한 권 분량을 시집 발간 형식으로 정리(한글문서 10pt)해 메일로 발송(dalssoo@hanmail.net)
- 예심(심사위원) 본심(별도 심사위원 위촉) 11월 시상 및 ‘달을 쏘다’ 시인선으로 발간

제 4회 동주해외작가상

- 공모 부문: 시(한글) ▷대상: 등단 10년 이상으로 해외 거주하는 시인
- 응모 작품 수: 5편 이상 10편 이내
- 마감: 2019년 8월 31일 ▷상금: 300만원
- 응모 요령: 이메일(poemmtss@hanmail.net) 접수 원고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약력, 전화번호) 기재 문의 02-764-8722, 010-8894-8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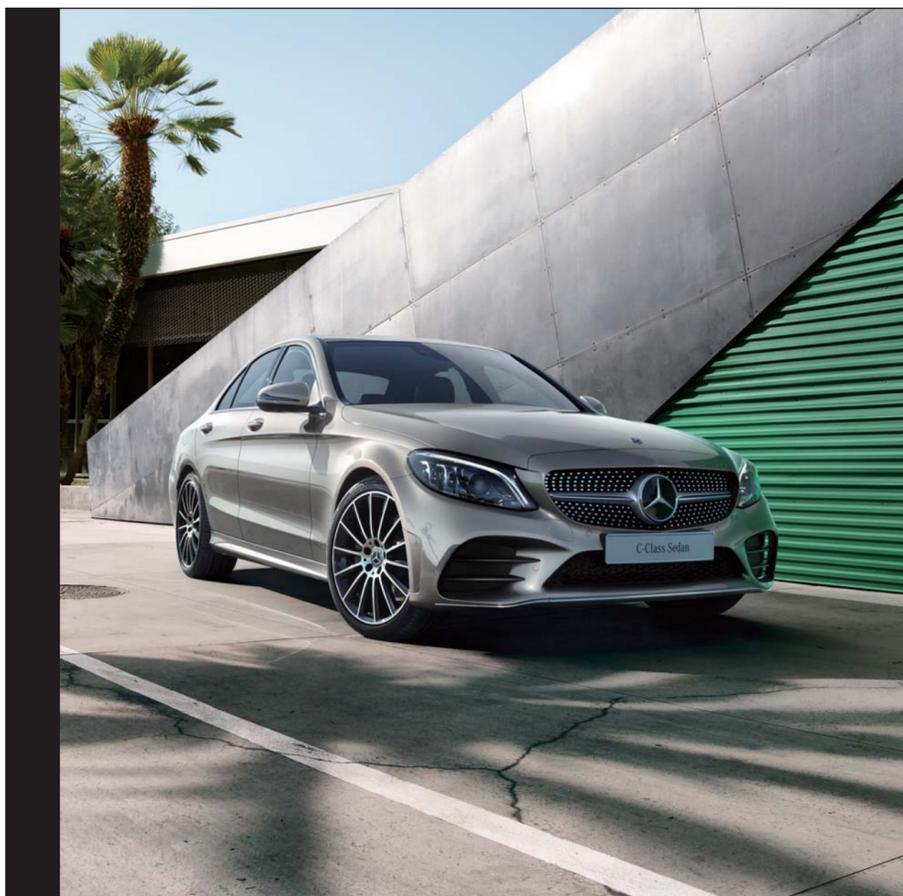
光州日報社

보성 촌로들 식발·단식하는 까닭은 ▶6편

한국영화 100년 - 하이틴 영화 ▶18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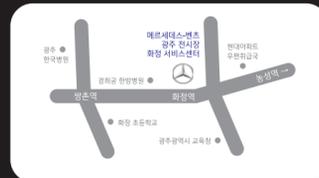
300호 흥런 주인공 KIA 최형우 ▶20편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인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l/도심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6.3km/l, 등급: 2등급, 복합CO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